

韓國商品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

A Study for the Competitive Capacity of Korean Products

林熙喆*

— 目 次 —

- I. 引言
- II. 國際競爭力의 概念
- III. 競爭力 綜合的 評價指標로서의 輸出入 Cycle 分析
- IV. 未來를 위한 長期的 競爭力 提高方案
- V. 結論

I. 引言

國際競爭力은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を 意味하며, 國內市場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그 差異의 原因은 國境의 存在 때문인데, 이때 國境이란 政府의 各種 制限이 加해지는 領域을 區劃하는 것이다. 國家는 統一된 政治制度를 갖고 共通的 經濟的 利害關係로 因해서 強力한 協同體의 概念을 갖는 領域으로서 거기에서 政府는 調整者役割을 하고 對外的으로 統一된 意思를 나타내고 때로 國家間에 衝突 또는妥協을 가져오기도 한다.

現今의 世界經濟는 世界統一政府가 없는 狀況에서 國家間의 利害調整을 為하는 UN을 為始하여 여러 國際機構 또는 統一規則에 따라서 個人の 經濟活動의 自由가 保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統一機構나 統一規則도 거기에 合意하여야 하고 또 그 合意된 事項은 各自가 履行하여야 한다는 데에 難點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人類의 理想은 統一된 世界이고 또 個人으로서도 國境을 超越하여 全世界를 網羅하여 經濟活動을 펼칠 때 그 生產活動과 消費生活의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單一世界市場化當面課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國家가 存續되는 世界에서 世界化는 國際化가 될 수밖에 없고 國際化가 우리의

* 本研究所 研究員, 經商大學 貿易學科 教授

當面課題일수 밖에 없다.

國際化過程에서 國民은 國益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 國家領域內에서 經濟活動은 政府의 調整下에서 競爭한다. 國際市場에서는 自國產業이 競爭에 이겨야만 國家는 富強해질 수 있다. 그려기에 各國은 自國產業의 保護, 育成에 힘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서 個人의 競爭이 國家間의 競爭으로 發展하여 때로는 國際政治·外交·通商·軍事力量을 動用하는 壓力乃至 戰爭까지 있어왔다.

U.R. 以後 世界는 貿易에 關한 限 單一市場化하여 모든企業은 國內市場에서와 마찬가지로 世界의 여러企業, 여러商品과 競爭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UR이 完全施行되면 企業은 政府의 保護나 支援을 받지 못하게 된다.

世界市場과 國內市場에서 우리商品이 팔리기 위하여는 競爭力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商品의 競爭力を 評價해보고 그 提高方案을 模索해 보는 것도 意味 있는 일일 것이다.

II. 國際競爭力의 概念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用語는 國際競爭力이다. 여기서 競爭力이란 商品의 國家間競爭力を 意味하며, 그것은 어느一方이 오판하는 諸條件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한다. 卽一方이 提示하는 條件이 他方의 그것에 比하여 有利하다는 相對的 評價인 것이다. 흔히 競爭력은 價格競爭力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 외에 매우 重要한 要因이 品質과 서비스라는 點도 잘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서 品質과 서비스가 같은 水準의 것을 同級이라고 한다면, 商品의 競爭力이란 “同種·同級의 商品의 價格競爭面에서 優位를 占하는 것”이라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어느商品이 競爭력을 가지려면 그商品을 만드는 企業의 努力뿐 아니라 關聯企業들의 努力이 結集되어야 하고 따라서 當該產業이 競爭력을 갖는다는 산업競爭力이라고도 불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商品이 競爭력을 發揮하려면 個別企業이나 產業에서 감당할 수 없는 國家的 次元에서 解決해야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國家競爭力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國家의 役割은 지금까지 產業의 保護·育成, 社會間接資本의 造成, 發券力, 通商·外交의 支援 그리고 安保力量等 이라고 할 것이다.

國家間競爭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競爭力은 相對的 力量이라는 點이다. 自國·自己企業力量만이 아니라 諸外國企業의 力量과 견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競爭力은 時間에 따라 變하는 動態的 概念이다. 自身도 變하고 相對方도 時間에 따라 變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競爭力의 源泉을 “進化能力”(Evolving Capacity)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¹⁾

부연설명하면 어느 會社가 長期的으로 成功하려면 競爭者로부터 自身을 差別化하는 새로운 法을 持續的으로 追求해야 한다는 것이다.

競爭力を 確保하려면 創意와 能率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競爭狀態에서 가장 効果的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競爭狀態란 政府의 于與가 없는 狀態이다.

UR은 物資와 서비스의 交易에 政府의 于與를 最少化함을 指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府의 制限과 保護나 補助金 等 競爭抑制的 諸般措置를 排除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完全히 履行되고 나면 世界는 單一市場과 같이 되어 貿易에 關한 限 國境이 거의 없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相異한 國家가 아니라 相異한 企業間의 競國家競爭力이란 用語는 國際競爭이 있을 때 얘기지 國家間移動이 國內移動과 差異가 없게 될 21世紀에는 없어질 概念이다.²⁾

앞으로 우리 企業이 世界의 企業들과 競爭함에 있어서 政府(國家)의 役割은 安保와 社會間接資本과 教育 等 經濟下部構造를 牢固히 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國內에서도 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는 것이다. 公然이 國家의 概念을 내세워 國民의 意識을 改革하는데 支障을 줄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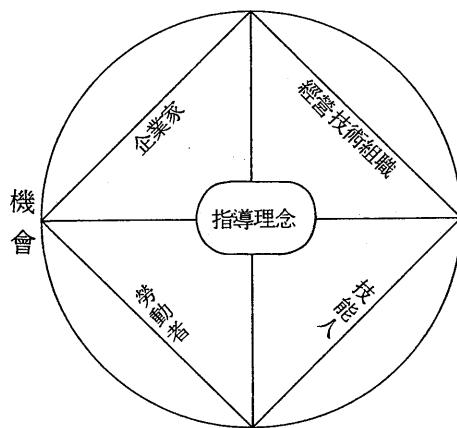
間接資本과 教育 等 經濟下部構造를 牢固히 해주는것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國내에서도 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는 것이다. 公然이 國家의 概念을 내세워 國民의 意識을 改革하는데 支障을 줄까 두렵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조교수는 porter教授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修正導入하여 獨自의 競爭力評價 Paradigm을 提示한 貢獻을 認定받아 마땅하다.

1) Hayes, R.H. and Pisano, G.P.,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94, P. 86.

2) 이와 關聯하여 概念의 混亂을 가져오기 쉬운點은 조동성教授의 著書『國家競爭力』에서 第一部의 題目이 國際競爭力으로 잡혀 있는데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國際競爭力의 概念으로 되어 있고 2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國家競爭力의 概念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國家競爭力이란 用語를 流行시킨 著者마저 概念의混沌을 克服하지 못한 例라고 생각된다. 조동성 편저, 국가경쟁력, 매일경제신문, 1992 參照.

다만 그의 競爭力 源泉中³⁾ 人的 要素 가운데 「政治家와 行政官僚」는 諸般 人的 要素의 行爲를 支配하는 中樞的 要素로서의 「指導理念」으로 代置되야 할 것이고 「專門經營者와 技術者」는 그들을 効果的으로 組職運營하는 「經營·技術組職」으로 代置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機會」는 競爭力의 外部要因으로 보기 보다는, 그것에 잘 對處하면 競爭力 發揮에 成功하고 그렇지 못하면 失敗하는 「隨時로 變動하는 狀況」으로 把握하고 싶다. 이렇게 볼 때 内部要因이 結集되어 「機會에 對處하는 能力」이 다름아닌 競爭력의 源泉인 것이다. 여기에서 人的 要素에는 生產·販賣技能이 重要的 要素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porter의 Diamond模型은 다음과 같이 修正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修正다이아몬드 모델

III. 競爭力 綜合的 評價指標로서의 輸出入 Cycle 分析

우루과이·라운드는 世界市場을 國家의 強權이 介在하지 않는 競爭市場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世界를 單一의 自由市場化로 指向하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시카고大學의 Friedman教授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競爭市場은 아직까지 發見한 (政府의)強制 없이 私的 經濟活動을 調整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다.

政府의 保護와 支援이 尚存하는 狀態에서의 實績을 가지고 將來의 競爭力を 評價하기에 여러가지 難點이 따르겠으나, 우리는 여기서 工業化以前의 段階부터 最近까지의 輸出入商

3) 조교수는 이것을 競爭力 評價要因으로 區分하였으나, 이것은 評價要因보다 競爭力의 源泉으로서의 要因으로 봄이 妥當할 것이다.

韓國商品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

品의 cycle을 分析해 봄으로써 앞으로 競爭的 優位에 설 수 있을 商品을 模索해 보는 것도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10大輸出商品의 動向

순위	1961	1966	1971	1975	1980
1	鐵礦石	被服類	被服類	被服類	남성셔츠
2	重石	合板	合板	電子製品	타이어튜브
3	生糸	綢織物	電子製品	織物類	폴리에스텔직물
4	無煙炭	가발	쉐타	쉐타	기타의 기타상
5	오징어	生糸	가발	合板	포화
6	鮮魚	綿布	綿製品	合成樹脂製品	합판
7	黑鉛	重石	織物類	신발類	기타신발
8	合板	海苔	참치	遠洋魚類	흑백 TV
9	쌀	鮮魚	신발類	綿製品	후판
10	豚毛	鋼板	生糸	船舶	신사복 상의

순위	1985	1990	1991	1992
1	발크선	디지탈식 이외의	디지탈식 이외의	디지탈식 이외의
2	기타 화물선	운동용 혁화	폴리에스텔직물	운동용 혁화
3	컨테이너 선	승용차	탱카	승용차
4	일반혁화	폴리에스터 직물	운동용 혁화	폴리에스텔직물
5	폴리에스텔직물	혁제의류	승용차	혁제의류
6	기타철구조물	디지탈식집적회로	디지탈식집적회로	디지탈식집적회로
7	남성셔츠	컬러TV	혁제의류	혁제의류
8	승용차	라디오 카세트	컬러TV	컬러TV
9	라디오 카세트	VTR	VTR	VTR
10	타이어 및 튜부	음극선광단말기	라디오 카세트	음극선광단말기

資料：1975년까지는 林熙喆, 韓國貿易論, 貿易經營社, p. 2; 關稅廳(CCCN)

그 後는 貿協 MTI에 依據함.

앞서 發展한 나라들을 볼 때 產業의 發達에는 先導商品이 있었다. 英國의 蒸氣機關과 그에 따른 紡織工場을 비롯한 工場制 工業이 發達했고, 美國에서는 電氣電話 그리고 自動車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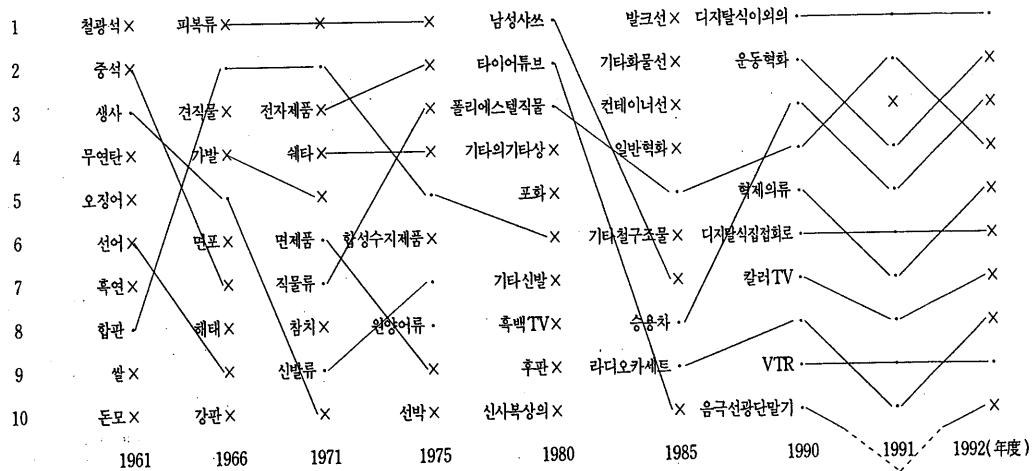
產 業 研 究

先導했고, 1950年代 日本은 Transister의 商品化에 成功했고 60年代初에 Polypropylen의 商品化, 70年代初에는 半導體 80年代初엔 水唱時計 等을 商品化하여 國家產業을 先導했다.

우리나라도 競爭에서 優位를 確保한 商品이 있을 때 諸產業이 興起할 텐데 그것을 보기 위하여는 輸出商品의 life cycle을 볼 必要가 있고, 또 그 Cycle을 一部라도 보기 위하여는 輸入商品의 開發可能性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表1과 圖2는 우리나라가 本格的 工業화를 開始하기 前인 1961年부터 最近까지 上位 10位까지의 輸出商品의 浮沈을 본 것이다.

(位)



(그림 2) 우리나라의 10大 輸出商品 life Cycle

10大輸出商品의 浮沈

우리나라에서 工業화가 시작되기 前에는 우리의 輸出商品은 抽出產品이 大宗을 이루고 있었다. 卽 10大輸出商品中에는 鐵鑛石, 重石, 無煙炭, 黑鉛等의 鑛產物과 生糸, 오징어, 鮮魚, 쌀, 豚毛等의 農水產物이 解放後 60年代初까지의 우리의 主力輸出品이었다. 單한가지 單純加工產物이라고 할 수 있는 消費商品으로 合板뿐이었다. 그것들은 大部分 工業化 着手段階에서 그 大宗商品으로서의 壽命을 다하였으니 重石과 鮮魚는 第1次5個年計劃의 目標年度以後까지 15年以上의 壽命을 누렸으며, 生糸는 主市場이었던 日本이 中國과 修交함

에 따라 斜陽產業化하였고 合板은 20年以上 大宗輸出品의 자리를 지켰으나 80年代初부터의 國內需要의 急膨脹과 原木供給國의 國內附加價值提高努力으로 因해서 1981年以後 大宗輸出品에서 脫落하고 말았다.

1966年에는 이전부터 10大輸出品에 들었던 4個商品(重石, 生糸, 鮮魚, 合板)外에 6個(被服類, 絹織物, 假髮, 綿布, 海苔, 銅板)의 新規商品이 登場하였다. 이들中 被服類는 그后 10全年間 一位의 자리를 維持해오다 1977年 CCCN分類方式이 MTI分類方式으로 變換하여 紳士服上·下衣, 幼兒服, 코트·쟈켓等 用途別로 細分化되어 이들을 合算하면 4·5年間 더 그 자리를 維持하여오다 中國의 開放化와 泰國·말레이지아等 東南亞 後發國과 멕시年以內의 短命이었으나 開發初期의 輸入需要를 充足하는데 寄與한 바 커다고 評價된다.

生糸가 高附加價值化된 絹織物과 綿布는 短命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70年代 들어 織物類도 統合되어 10年以上 命脈을 維持하다가 中國 等 舊共產圈이 弱勢인 포리에스텔織物 即合成織物로 發展하여 現今까지 10大輸出商品의 대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假髮 亦是 10年以內의 短命이었으나 開發初期의 輸入需要를 充足하는데 寄與한 바 커다고 評價된다.

海苔는 여기에선 短命으로 나타났으나 工業化前 우리나라의 輸出大宗商品으로 浮刻되었던 日本에서의 豐凶에 따라 그 輸出이 浮沈하였던 것이다. 鋼板輸出은 造船·自動車等 國內需要가 일어나기前 잠시 반짝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1年에는 電子製品이 登場 70年代中盤까지 이어지고, 그後 黑白TV, 라디오·카세트, 칼라TV, VTR等과 직접화로, 음극선광단말기等 尖端電子機器製品이 이어져 現在로 이어졌다.

쉐타, 綿製品, 織物類, 신발等 輕工業製品이 大據登場하여 合成纖維織物과 包靴, 革靴運動靴等으로 細分化·發展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참치는 遠洋魚類에 包括되어 5·6年間繼續되었다.

1975年에는 合成樹脂製品과 船舶等 重化學製品이 登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들은 폴리에스텔織物과 벌크船, 貨物船, 컨테이너船, 텅카等으로 擴大發展하여왔다.

1980年에는 타이어·튜브가 登場하여 5·6年間 大宗輸出商品자리를 지켰는데, 이는 폴리에스텔織物, TV, 厚板等과 함께 새로이 登場한 重化學製品인데, 이때 輕工業·重工業製品輸出比重이 거의 半半이 되었다.

1985年에는 各種船舶과 기타의 鐵構造物, 乘用車 그리고 라디오·카세트가 加勢하여 輕工業製品은 男性沙쓰와 一般革靴뿐이 되었다.

1990年代에 들어와서는 運動革靴와 革製衣類 이 두 輕工業製品을 代置하여 제법 長壽할

產 業 研 究

商品으로 나타났고, 集積回路와 칼라TV, VTR, 陰極關光端末機 그리고 텅카 등 重工業製品이 長壽할 氣勢를 보이고 있다.

이들 韓國의 輸出商品들은 標準化商品이며, 그 가운데 比較的 資本集約의 機能集約의인 商品들이다. 其他 60·70年代에 韓國의 外貨稼得을 主導했던 製品들은 纖維製品·신발類等 勞動集約製品들은 對外直接投資를 通해서 間接輸出形態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輕工業과 一部重化學工業의 對外投資가 있게 될텐데, 여기서 念慮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地政學의 位置로 因한 安保上의 不安心理이다. 이 不安은 不要不急한 對外投資를 促進하고 또 거기에서 얻은 利潤의 本國送金을 주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資本自由化後 對外投資에 對한 融資와 保險條件等에서 利潤의 本國送金이 全額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外換管理法을 代置할 수 있는 唯一한 措置일 것이다.

둘째로 憂慮되는 바는 企業의 生命을 長期化하는 길이 新商品開發이라하여 新發明을 企圖하여 莫大한 R&D投資를 하려들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오히려 小資本을 들여 標準化된 商品을 改良하여 品質向上과 新用途를 開發하여 既存商品의 壽命을 늘리는 것이 보다 效率의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考慮할 點은 商品의 老朽化戰略을 함부로 따르는 것을 止揚할 일이다. 老朽化戰略(Obsolescence Strategy)는 60·70年代에 美國企業의 耐久消費財의 販賣擴大戰略으로 型式을 자꾸 바꿔서 舊型을 廢棄하고 新型을 取擇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非經濟的일뿐 아니라 資源의 浪費와 公害를 惹起하므로서 앞으로 環境保護가 重視되는 마당에 合當한 戰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0大輸入商品의 浮沈

保護의 對象은 外國商品에 對하여 國內商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國內產業保護를 위하여 外國商品에 課하던 輸入制限이 없어지고나면 그때 진짜 競爭力を 發揮해야 할 것이다.

保護下에서는 外國企業의 競爭이 排除되어 事實上 政府의 힘에 依한 獨寡占의 利點을 누려온 것이다. 여기에는 公企業에 있기 쉬운 官僚主義의 非效率이 따르게 마련이다. Hamilton의 過保護의 弊害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對內外的으로 競爭력이 確保되지 못한 商品은 今世紀內에 非常한 努力이 없이는 世界的 競爭場裡에서 脱落하고 말 것이다.

10大輸入商品의 境遇를 보면 原油·原木·原糖·生고무 等 國內에 賦存하지못한 原料와 小麥, 옥수수, 原綿 等 PL480으로 有利한 導入條件과 對充資金活用을 위한 大量輸入

韓國商品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

으로 因하여 國內生產이 全面斷絕된 品目등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長期間 大量輸入需要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1年에 大宗輸入商品이었던 纖維絲·發電機·醫藥品：필프：原動機 等은 工業化 初期의 開發需要였다고 생각된다.

〈표 2〉 우리나라 10大輸入商品의 動向

순위	1961	1971	1975	1980
1	原油	原油	原油	原油
2	小麥	原木	有機化合物	原木
3	纖維絲	쌀	小麥	原綿
4	原木	小麥	船舶	原糖
5	생고무	原綿	原綿	기타의 기타상
6	原料	纖維機械	船舶	熱延鋼板
7	發電機	織物	쌀	小麥
8	醫療品	船舶	광전관	옥수수
9	필프	鐵鋼塊	原糖	방카씨유
10	原動機	古鐵	纖維機械	航空機

순위	1985	1990	1991	1992
1	原油	原油	原油	原油
2	별크船	디지탈이외의집적회로	디지탈이외의집적회로	디지탈이외의집적회로
3	기타의 貨物船	별계이외의기계	별계이외의기계	별계이외의機械
4	有煙炭	有煙炭	航空機	有煙炭
5	컨테이너선	소의것	有煙炭	별계이외의機械
6	原綿	기타의유기화학	기타의유기화학	기타의유기화학
7	原木	原木	原木	납사
8	小麥	디지탈식집적회로	디지탈식집적회로	自動車部品
9	옥수수	옥수수	소의것	原木
10	기타의 有機化學	섬유기계	섬유기계	기타계측기

資料：表1과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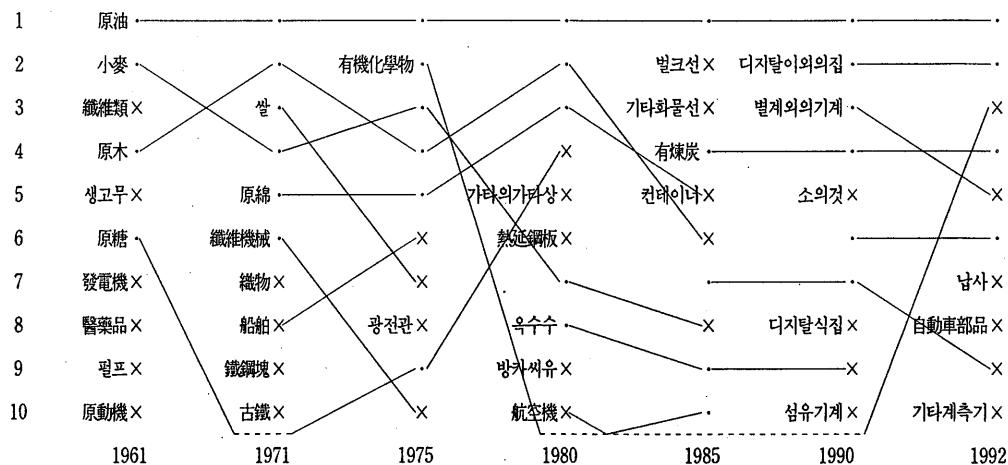
70年代初의 쌀의 大量輸入은 凶作과 資源波動의 結果였으리라. 하여튼 쌀의 輸入開放에

產 業 研 究

苦心하고 있는 오늘날 不過15·6年前에 쌀을 大量으로 輸入해야만 食糧窮乏을 免했던 時節을 생각할 때 今昔之感이 난다.

纖維機械가 大宗輸入商品으로 登場하여 5·6年間 그 地位를 維持하였음은 原綿·織物等의 그것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織物類·衣服類等의 輸出이 活氣를 띠었던 바와 견주어 볼 때 Ranis의 “輸出代替”를 위한 機資材의 輸入이었다고 본다.⁴⁾ 船舶, 鐵鋼塊, 古鐵 等의 一時的 輸入增大는 各種機械類의 内·外需擴大에 對한 對比的 性格이 있었다고 본다.

70年代中盤부터 登場하여 現在까지 大量輸入되고 있는 有機化合物은 原材料로서 長壽可 能性이 높은 商品이며, 80年代初 一時登場했던 热延銅板의 輸入은 그후 輸出이 好調를 띠고 内需또한 旺盛한 乘用車·船舶類 等 生產擴大와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注目되는 바는 航空機의 登場으로 그 輸入이 最近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國內複數航空社許容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10大輸入商品의 life Cycle

80年代 中盤에 主要輸入商品으로 登場하여 最近까지 이어지고 있는 有煙炭은 製鐵窯業等의 燃料로서 前述한 몇가지 國내에 賦存하지 않은 自然產物로 長壽가 必至이다. 貨物船·컨테이너船 等 各種船舶類는 80年代初盤 國內需要를 國內造船業界가 充足시키지 못하던 時代에 Containerization 等 國際輸送革命에 對處키 위한 臨時的 現象이었다고 본다. 集積

4) Ranis, 對 IECOK 報告

韓國商品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

回路는 輸入과 輸出이 同時に 이루어지는 產業內水平交易의 代表적인 境遇로 보아야 할텐데, 電記機器類의 内外需와 그에 따른 D-Ram別 需給調節 때문일 것인 바, 여기에선 D-Ram의 高度化 努力이 特히 ¥高의 時期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것은 ¥高로 因하여 우리의 輸出이 잘되어 資金余力이 생겨 R&D에 들릴 수 있을 때임과 同時に 日本의 境遇 ¥高로 因해서 自己内の 輸出길이 막힘으로써 이미 蕩積된 資金力を 가지고 新商品開發과 品質改善努力을 傾注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高로 因한 價格競爭面에서의 優位가 없어지고 난후에 對備하여 品質 優位를 確保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努力이 要求되는 것이다.

最近에 登場하는 纖維機械와 나프사의 輸入은 石油化學增設과 纖維製品高級化의 一環으로서 輸入은 一時的 現象임이 틀림없을 터이니 此際에 그것들의 國內製造能力을 갖추어 次後の 輸出商品化 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計測機의 輸入은 國內工業의 精密度向上과 品質向上에 도움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도 高度의 精密計測機의 模倣·開發努力이 要求된다.

自動車部品의 輸入은 自動車의 内外需擴大와 聯關하여 생각할 問題로서, 自動車組立이 이미 標準化된 狀況에서 開途國에 그生産이 擴散될 것은 必至이거니와 先進國에서의 經營革新努力이 價格競爭에서의 優位를 회복할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自動車部品에 對한 外需가 完成車의 輸出을 능가할 可能性이 크고 또 그 市場도 더욱 를 것이기 때문에 部品의 品質 및 價格競爭力を 높이는 努力이 아쉽다.

IV. 未來를 위한 長期的 競爭力 提高方案

1. 專用權 說에 關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Magee의 專用權說(Appropriability)을 吟味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新商品(또는 새로운 Idea)을 開發한 企業은 그 特許權이 存續하는 期間동안(또는 그 새 idea를 排他的으로 利用하는 限) 獨占의 生產과 販賣를 하여 開發者利益을 取한다. 이것을 他企業이 模倣하거나 盜用하는 것을 막기위하여는 그것을 內部化(Internalization)하기 위하여 國際企業화하는 것이다.

Magee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 專用權이 무너지고 나면 開發者의 獨占은 그 以上 持續될수 없고 他國, 他企業들도 그 아이디어의 利用이 可能하게되어 그 商品은 標準化商品(Standardized Goods)이 된다. 그리하여 Magee는 新商品과 標準化商品의 二段階 Cycle

說을 提示하였다.⁵⁾

國際企業은 한 社會가 여러나라에 存在하며 그들間에 去來함으로써 內部化를 이루어 新商品의 專用權을 保持하고 또 한편으로는 各國의 政府規制를 避免하여 標準化商品의 賣出을 올린다. 新商品에 있어서는 內部化가 아니면 (특히 獨立된 會社間의 貿易去來에는) 技術契約을 맺고 흔히 政府의 承認을 받아 專用權을 行使하고, 標準化商品의 貿易에는 政府의 承認·認·許可 따위를 얻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現象이었다.

그러나 Uruguay Round가 完全發効될 21世紀에는 狀況이 전혀 달라진다. 政府規制나 支援은 없어지고 外國投資도 自由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企業間의 國際競爭은 지금까지 國內企業間競爭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다만 自然的·文化的 環境差는 考慮해야 하겠지만 一國內에도 크건 작건間에 差異가 있을 수 있으며, 發展段階에 따라 생기는 賃金格差問題도 要素의 自由移動에 따라 어느程度 暖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競爭力의 概念에는 商品 또는 企業競爭力 기껏해야 產業競爭力이 있을 뿐 國家競爭力を 云謂하는 것은 舊時代의 遺物같은 소리이다. 外換·貿易이 自由로운 狀況에서 競爭력이 國家에 의해서 造成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貿易利益이 全額 國富를 形成한다는 保障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는 自國產業을 直接保護·支援 할 수도 없고 또 그 必要도 없으며, 企業은 社會間接資本을 利用할뿐 國家의 保護나 支援을 期待하여서도 않된다.

2. 地球中心的 經營

韓國·臺灣等 植民地를 가졌던 日本은 그에 滿足치 않고 滿洲를 侵略하고 中國本土로 進軍하고 植民地配分에 不滿이던 獨·伊와 同盟하여 聯合軍과 第2次大戰을 일으켜 敗戰함에 이르렀다.

戰後 美國中心의 UN과 IMF, GATT體制로써 世界平和와 國稅의 引下를 通한 繁榮을 위한 努力이 傾注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國家利己主義와 地域利己主義가 東西冷戰과 맞물리고 各國은 새로이 非關稅障壁이 擡頭하여 增進하던 世界貿易이 停滯될 危險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만 그간에 생겨난 多國籍企業은 國境을 超越하여 國際的으로 活動하는 所謂 國際企業

5) Stephen, P., Magee, *International Trade*,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nc., 1980, pp. 30—31.

으로 開途國의 關稅·非關稅障壁을 置고 들어가 그 雇傭增大에 寄與하면서 그 市場을 内部로 부터 蠶食하는 한편 그들의 母企業이 存在하는 先進國에는 失業이 늘고 勞組의 反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多國籍企業의 產室이던 美國은 두가지 困難에 直面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는 國內失業의 累增과 그에따른 內國稅收의 減少와 失業手當等의 財政赤字要因이며 또 하나는 貿易收支와 資本收支의 赤字이다. 그리하여 美國에서는 社會保障의 減縮論議와 DISC法⁶⁾으로 輸出을 促進하여 貿易收支를 反轉시키려 하였으나 制限이 없는⁷⁾ 輸入이 늘어남에 따라 그 實效를 걷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은 入超商品에 對한 國別奎타나 自發的 數量抑制等을 實行하므로써 日本을 필두로 하는 非關稅障壁을 편國家群에 合流하고 말았다.

1970年代에 提起되었든 IMF/GATT體制의 危機說은 그때까지 翹 온 國際通貨의 偏在를 是正하고 關稅障壁의 緩和에 限界를 露呈하였기 때문이었다. 1986年 Uruguay Punta Del Este 閣僚宣言은 GATT가 管掌하는 貿易뿐 아니라 貿易에 必히 隨伴하는 國際金融의 問題까지 解決하려는 努力이며, 그것이 實現될때 GATT加盟國間의 商品·서비스의 移動에는 지금까지 數次의 Round로 充分히 낮추어진 關稅以外의 障壁없는 狀態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그때까지 一括妥結에 이르지 못했던 農產物과 더 나아가 通商: 金融等 서비스 分野까지도 完全開放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企業은 世界單一市場에서의 競爭에 이겨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支援과 保護政策이 없는 狀況에서 各國의 自然的 文化的環境差에 適應하며 競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企業의 經營도 Perlmutte教授의 “地球中心的 經濟” (Geocentric Management)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世界市場指向的 經營을 하는 世界企業으로서 世界 어디에서건 生產販賣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社會正義와 效率性의 問題

우리나라에는 舊共產圈을 除外하고 國有·國營財產이 많은 나라이다. 國家企業은 흔히

6) Domestic International Supply Corporation Act로 輸出이 實上의 50%以上을 點하는 限 徵稅 猶予(tax credit)를 賦與한다는 1969年發動한 法.

7) 그때까지 美國은 外換輸入이 完全開放된 市場이었다.

8) Perlmutte 教授는 經營의 國際化過程을 ① 自民族中心的 經營(Ethnocentric Management) ② 多中心的 經營(polycentric Management) ③ 地球中心的 經營(Geocentric Management)를 거쳐漸次 國籍概念이 없어질땐 ④ 無國籍經營(Cosmopolitan Management)의 4가지로 區分하였다.

產業研究

獨占의 境遇가 많기 때문에 또는 利益이 發生해도 그것을 政府의 一般會計에 轉入해야 하며 赤字가 나도 政府財政에서 補償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人事에 政治的 考慮가 作用하기 때문에 非效率的으로 運營된다. 이것을 官僚主義의 弊害라고 한다.

國·公營企業의 弊害를 脫皮하고 그러면서 公共의 目的是 堅持하기 위하여 公社化 나아가 私營化하기도 한다. 公社化는 그 運營을 商業的으로 함으로써 그 企業의 效率性을 極大化한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現在까지 公社化된 公企業이나 民間에 拂下된 企業들이 效率性을 發揮하고 있는지 疑心스럽다. 거기엔 如前히 硬直性과 不合理가 殘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原因은 監督機關의 人事干與와 購買와 販賣에의 影響力行使 때문이며, 나아가 所謂 社會正義를 내세운 勞動組合과 勞動關係法 및 行政機關의 効率阻害의 行爲때문이라 생각된다.

窮極에 가서는 民營化해야 할 터인데 그때에는 監督官廳의 발호는 排除해야 할 것이다. 效率性의 提高가 곧 競爭力의 強化에 통하기 때문이다.

官僚主義가 企業의 競爭力低下에 主要한 要因임이 分明해진 現今, 公企業의 民間化가 時急해진다. 여기서 깊이 考慮해야 할 것은 官僚主義의 低能率의 原因으로 指目될 수 있는 것은 그 人事의 放慢性 때문이다. 單一의 公企業을 複數의 民間企業으로 拂下하는 것은 生產性 向上과 サービ스의 向上에 도움될 것은 틀림없으나, 그때 그 効果의 極大化를 위하여는 企業의 人事管理權이 制的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企業이란 利潤을 追求하여 商品·用役을 生產·販賣하는 經濟主體이다. 여기서 調達·生產·販賣·서비스의 各段階가 效率的으로 活動해야만 利潤이 極大化될 수 있다. 그런데 公企業은 組織과 運營에 效率性이 欠如되어 있는 것이一般的이다. 그렇다면 公企業을 民間企業化함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非效率을打破하지 않으면 그 意義가 發揮 할수 없게 된다. 卽 쓸데없는 人員은 整理 할수 있고 適材適所에 配置하는데 制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資本主義下에서 資本家 卽 企業家는 強者, 勤勞者 또는 要素供給者는 弱者라는 觀念下에 勞組가 있고 勞動法制와 勞動行政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자칫 企業家를 弱者의 立場에 놓이게 하여 公企業의 私企業化의 効果를 겉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政府의 役割

以上에서는 政府의 役割이 最少화하는 것이 企業競爭力提高에 必要不可缺한 點이라는

것이 強調되었다. 그러나 過度한 直接的 干涉의 排除를 強調하기 위한 것이었고, 間接的으로 企業活動의 潤滑油役割을 政府는 遂行해야 한다.

첫째로 政府는 100年 앞을 내다보고 交通通信 等 社會間接資本의 サービス를 提供하여 企業의 流通費用節減에 寄與해야 할 것이다. 둘째, 通商協商能力을 提高해야 할 것과 教育發展을 期해야 한다는 點은 周知의 事實이다. 세째, 政府는 中央翻譯院을 設置하여 輻輳하는 最新情報를 迅速히 翻譯하여 企業들에 提供해주어야 「進化能力」을 發揮하여 새롭히 새롭히 擡頭하는 機會를 活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重要한 것은 未來學을 發展시켜 企業 스스로豫測可能한 未來의 發展方向에 對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現在 未來學會가 “점쟁이의 集團”으로 變形된 것은 分明히 是正되어야 하며 經濟·社會·農工學徒를 廣範히 包括하는 學術團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V. 結語

지금까지 우리는 國際競爭力이란 말에 익숙했고 또 그말을 使用해 왔다. 그러나 UR이 國家의 各種規制·支援 等을 撤廢하여 世界의 個別企業間의 自由競爭을 通한 交易이 이루 어지므로써 商品의 生產과 利用에 效率性의 極大化를追求하는 마당에 國際 즉 國家間競爭力이란 無意味하다. 또한 最近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國家競爭力이라는 말도 같은 理由 때문에 未來指向的 概念을 가진 用語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貿易에서 그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는 競爭力이란 商品 또는 企業競爭力이라고 본다.

앞으로 貿易에 있어서 그 힘이 弱해져가는 國家·政府의 役割을 強調하게 되는 國家競爭力이란 말의 流行이 자칫 政府의 制限되어야 할 役割의 方向을 잘못 잡게 될까 應慮된다.

企業의 競爭力은 競爭場裡에서 他社製品에 比한 優位性을 말한다. 그것은 企業이 物的·人的可用資源을 結集하여 가장 效率的으로 運用할 때 期待되는 效果인데, 그와 같은 資源은 效率的運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다름아닌 競爭力의 源泉 또는 要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強調되는 것은 進化能力과 指導理念의 두 가지 要因이다.

競爭은 競爭相對와 相異한 觀察이 있어 相對的인 것이며, 때에 따라 달라지는 動態的 概念이다. 企業의 競爭戰略은 때와 장소에 適應하는 進化能力을 갖어야 한다. 戰略은 模倣하기 쉽고 顧客은各自의 處地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行動은 時間이 흐름에

產業研究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自社를 他社와 差別化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變化에도 卽刻對應하여 進化하는 能力を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機會를 捕捉하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指導理念은 社會의 모든 構成員의 行動을 規定하는 政策을 樹立하기에 앞서 考慮해야 하는 哲學的 思想이다. 宗教的으로 統合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受容하는 哲學도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지금 當場에는 期待할 수 없지만, 어느 個人的 權威에 依持하지 않고 어느 境遇에도 變함없이 모든 戰略과 政策을 支配할 哲學으로서의 指導理念이 必要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오른다」는 俗談이 있지만 여러 戰略家와 政策家의 基底에 民族固有의 指導理念이 깔릴 때 우리企業의 競爭力이 長期間 發揮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가운데 現在 그런대로 競競爭力を 갖춘 品目은 TV等 家庭用電子製品, 乘用車, 船舶 等이라고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部分이나 組立後의 品質 特히 仕上이 不備하다는 指摘들이 있다. 이는 技能人과 勞動者의 姿勢와 關聯되며, 심하면 納品業體와 發注業體間의 (不美스러운)關係에도 原因이 있다고 들린다. 이것도 長期的으로 옳은 姿勢를 가다듬을 때 克服可能할 것이다.

또한가지 有望한 輸出品目은 集積回路인 바 여기에는 標準化된 部分도 있고, 또 자꾸 高度化된 新商品의 開發도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內需와 外需가 엇갈리는 現象이 發見된다. 이와 類似한 現象은 完成乘用車와 自動車部品에서도 發見되는데, 이것들은 잘하면 新規의 大量輸出商品으로서의 競競爭력을 갖게 될 素地가 있다고 본다.

輸入商品에서는 原油, 原木, 有煙炭 鐵礦 알미늄 等 國內에 그 賦存이 全無하거나 稀少한 火然·原料가 工業化에 따라 繼續늘어남은 不可避한 것인데 다만 이들 品目에 關하여는 海外에서의 開發·輸入을 擴大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集積回路와 自動車部品의 輸入은 그것이 新素材나 新技法에 依한 보다 高度의 또한 한단계 아래의 半製品 때문이라면 그것은 오래지 않아 國내에서 開發·代替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납사와 其他有機化學製品은 最近新規參與로 擴大된 石油化學工業의 原材料供給余力이 모자라서 일어난 一時的 現象이라 믿는다. 別揭外의 機械의 大量輸入은 勞賃急上昇과 勞使關係가 圓滿치 못했던 80年代 中盤以後의 일로 그것은 機械化·自動化를 實現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토메이션은 發展함에 따라서 더욱 進展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電子·電氣·機械工業들이 더욱더 生產機械의 自動化 知能化를 힘써 競競爭력을 確保하기 바란다.

韓國商品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

그와 同時에 여기서 附加하고 싶은 바는 世界市場에서의 競爭이 激烈해지면 할수록 自動化 知能化는 더욱더 이루어 질텐데 그것이 極에 達하고 난 後에 人類가 希求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問題이다. 이와 關聯해서는 1940·50年代에 美國產業이 世界에 競爭相對가 없을 때 美國에서 있었던 勞動時間의 短縮과 土曜日休務, 水曜日 午後 休務制를 導入한 例에서 參考할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自動化·知能化의 進展과 步調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60年代以後 週 48時間 또는 44時間 勞動制를 固守하며 戰後復興된 西區·日本等의 產業에 競爭上의 優位를 잃어 美國貿易赤字가 慢性化된 하나의 要因이라고 본다. 그 것은 國際競爭場裡에서 國家競爭力이 36時間 對 48時間의 作業時間差異로 因한 競爭力의 當然한 逆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世界는 國家競爭이 아닌 個別企業間競爭時代이니까 어느 段階에 가면 人類의 經濟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 生活을 營爲하는 데에 接近하는 方向으로 움직여 勞賃上昇이 아닌 勞動時間 短縮의 方向으로 움직일 可能性이 크다. 이와같은 長期展望下에 競爭力を 維持하기 위하여 우리 企業들은 新製品開發을 위한 R&D에 對한 投資資金의 一部라도 標準化된 商品의 生產設備에 돌려 知能化·自動化에 加一層의 努力이 要求된다.

또한가지 強調하고 싶은 것은 簡樸人의 消費生活에 對한 愛國心에의 呼訴는 이미 鮢은 方法이며, 오히려 그것은 國營企業이나 大企業에 對해서만은 有効할지도 모른다. 例컨대 最近 電報祝賀カード에 附着한 極小型電子音樂裝置程度는 國內企業에 發注하여 開發시켰더라면 安定된 大量販賣處를 위한 量產이 가져올 價格切下效果도 期待可能한 것이고 또 그것이 輸出商品化로 可能했지 않았을까 아쉽다. 또한 大企業이 外製消費財를 輸入하여 廣告效果로써 消費者의 嗜好를 誤導하는 것도 우리 商品의 潛在的 競爭力의 痞을 자르는 結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된다.

이 모든 問題들의 解決을 위하여 政府나 企業의 戰略·政策의 樹立을 指導하는 理念으로 서의 民族의 經濟哲學이 생겨 定着될 것이 切實히 要求된다.

